문화유산 야간관광 명소화 박차

익산시, 문화재청 공모사업 5건 선정… 국비 27억원 확보

익산시가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야간관광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대표 야간관광지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202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5건 선정되며 국비 27억 원을 포함해 예산 58억 7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20억 원) △세계유산 축전(30억 원) △문화유산 야행(6억 5,000만 원)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5,000만 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1억 7,000만 원)이다.

이번 공모로 시는 2018년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서 처음으로 3건이 선정된 후 7년간 연속 공모 성과를 이뤘다.

시는 이 같은 정부지원을 토대로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의 야간관광 명소화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용화세계 백제人익산'을 주제로 한 달간 진행돼 1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예산 2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에는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유산 축전은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축제로, 내년에는 30억 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규모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세계유산 백제왕궁에서 진행된 익산 문화재 야행은 '백제왕궁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내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돼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근대역사박물관, 동학혁명기념재단·연구소 세미나 공동 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박물관 옆 장미공연장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을 주제로 '동학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소장 신영우)'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에서의 동학농민혁명 과정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준비됐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먼저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군산' 강연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근대사에 미친 영향과 혁명 속에서 군산의 상황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은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발표를 통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동학 관련 문서들의 내용을 분석해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의 역할과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장은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 및 활동 거점 연구' 발표를 통해 군산 출신임이 확인된 동학농민군 50명 개인들의 발자취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역에 남아있는 중요 사건의 장소 7곳을 재조명 한다. 이를 통하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의 동학 참여자들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집중 조명한다.

세미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군산 동학농민혁명을 새롭게 해석하여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에서 군산의 역할 공유로 향토애와 나라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시민이 만든 '로컬푸드 인증제' 시동

익산시가 인정한 우수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농약잔류검사 등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익산로컬푸드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익산시 로컬푸드인증 BI를 선정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과 모현점에서 실시한다.

시는 이번 BI선호도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3종류의 BI를 선정한 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익산로컬푸드인증 BI 상표등록과 함께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익산로컬푸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겨울철 코로나19 대비 예방접종 참여 당부

군산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에 접종하는 XBB.1.5 단가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됐으며 기존 백신 대비 XBB 변이에 더 강한 면역력을 형성하고 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낮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는 접종 권고 대상으로 신규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도 접종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관내 100개 위탁 의료기관이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맞는 겨울"이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주민 이웃애(愛)돌봄단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익산시, 이웃애(愛)돌봄단 성과 보고회… 사업추진실적·우수사례 공유 통한 사업 전반 보고

익산시가 지역주민 중심의 '이웃애(愛)돌봄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한다.

지역주민 중심의 '이웃애(愛)돌봄단'은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생필품 및 후원금 지원, 안전용품 및 행복나눔마켓, 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 3천여건의 지원에 참여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앞장섰다.

이와 관련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대표 김재일)는 지난 23일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올 한해동안 이웃애(愛)돌봄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복지 공통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이웃애(愛)돌봄단 추진실적과 읍면동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발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웃애(愛)돌봄단은 고독사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 자조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리장, 부녀회장 등 적극적이고 활동력이 높은 주민 157명으로 구성됐다.

읍면동 이웃애(愛)돌봄단 활동으로는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1h 주거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공적급여 신청 등 공적서비스 105건 △생필품 및 후원금 지원, 안전용품 및 행복나눔마켓, 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 민간 서비스 2,716건을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보고회에서는 낭산면과 남중동 돌봄단원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낭산면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내용과 돌봄단으로 활동하며 느낀 소감 등을, 남중동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 보고회,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정헌율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위기가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5일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 개최

익산시는 종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25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합창제는 '익산 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4대 종교(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대표 합창단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는 화합의 소리를 낼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하여 최종오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4대 종교 대표자와 종교인, 시민 등 1천여명이 화합의 장을 즐길 예정이다.

합창은 익산시 17개 성당의 성가단원으로 구성된 천주교의 '익산카톨릭연합합창단'에서 '키리에, 아뉴스데이, 아베 베룸 꼬르푸스'를 시작으로, 꿈과 비전을 바탕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기독교의 '드림합창단'에서 '은혜 아니면, 영화롭도다, 희망의노래 메들리'를 선보인다.

1978년 신심 깊은 여성교도로 구성된 어머니 합창단이 발전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원불교의 '중앙원음 합창단'에서 '이몸의 성도하여, 일원화 피우리라, 만남'을 30여 년 전 여성 불자들로 창단된 '가릉빈가합창단'에서 '아침서곡, 해조음소리, 사랑의 트위스트' 등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노래를 합창하여 관객들의 흥미를 돋을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은 4대 종교 합창단이 연합하여 '바람의 노래'를 끝으로 화합의 장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4대종교 대표자들은 "단순히 합창제로 끝나지 않고, 평상시에도 4대 종교간의 화합과 교류 등을 통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고 포용할 수 있는 익산시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우리 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4대 종교가 서로간에 교류와 화합을 나눌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종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대명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소농·고령농·영세농 소득 '쑥쑥'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원예농산물 매출 30억원을 달성하며 농촌 고령화로 생산판매가 어려워진 농가에 '제값 받는 농산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0억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입점농가도 지난해 904농가에 비해 220농가가 더 참여해 1,124농가로 24%나 늘어났다.

이 같은 성과는 소농·고령농·영세농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덕분이다.

시는 온라인 거래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택배비와 수수료, 택배박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획전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4월 토마토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기획전을 추진하여 약 3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농산물 판매 기획전을 추진하여 약 2억원 매출을 올렸다.

/익산=이재춘 기자